

'12년 4/4분기 수출전망 및 수출기업 체감도 분석

(2012. 10.)

목 차

- I. '12년 4/4분기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수출전망
- II. 수출기업의 수출업황 체감도 분석
 - 1. '12년 3/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2. '12년 4/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3. 설문조사 개요

I. '12년 4/4분기 수출선행지수 추이 및 수출전망

□ '12년 4/4분기 수출선행지수 127.2로 전기대비 하락

-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경기의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선행지수 전기대비 증가율 추이(%) : -0.9('12. 1/4) → 0.82(2/4) → 0.8(3/4) → -0.2(4/4)

□ 수출선행지수는 세계적 경기하향세, 수출단가 하락 및 가격경쟁력 악화, 반도체 경기둔화 양상 등으로 하락함

- 수출대상국 경기전망 : 유로지역 경기침체 지속, 미국 및 일본의 경기하향세와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전세계적인 수출수요의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수출단가 : 수요위축에 따른 경쟁심화로 가격하락 압력이 가중되어 반도체 등의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단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가격경쟁력 : 수출단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후 원화가 강세로 반전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 가격경쟁력 평가지수 : (주요국 수출단가/한국수출단가)*100

- 주요 산업 : 반도체의 수주/출하 비율이 1 이하로 하락하는 등 IT산업의 부진이 예상되고 선박수출도 수주부진의 시차적 영향 등으로 부진할 전망

□ '12년 4/4분기 수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5% 내외 기록 전망

- 수출선행지수가 전기대비 하락하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증가율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선행지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5('12. 1/4) → 1.0(2/4) → 0.6(3/4) → 0.6(4/4)

- 그러나 최근 미국, 중국 등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시행으로 수출증가율 하락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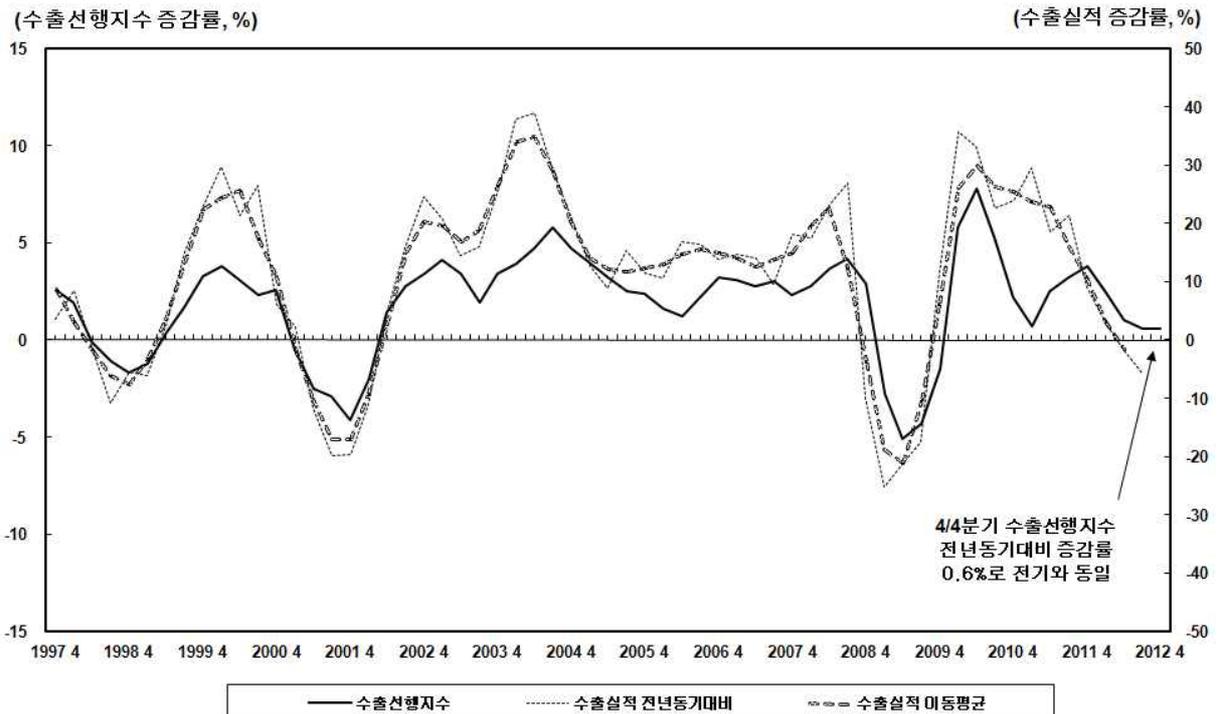
※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0('11. 4/4) → 3.0('12. 1/4) → -1.7(2/4) → -5.6(3/4)

<수출선행지수 추이>

분기별	2010년		2011년				2012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선행지수	122.7	121.9	122.4	125.2	126.6	126.5	125.4	126.4	127.4	127.2
전기대비 증감률(%)	0.4	-0.7	0.4	2.3	1.1	-0.1	-0.9	0.8	0.8	-0.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5.3	2.2	0.7	2.5	3.2	3.8	2.5	1.0	0.6	0.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의 전기대비 차(%p)	-2.5	-3.1	-1.5	1.8	0.7	0.6	-1.3	-1.5	-0.4	0.0

주 : 수출선행지수의 과거값은 평가요소의 값의 변동에 따라 수정·확정됨

<수출선행지수 및 수출경기(수출실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주 : 1) 수출실적 이동평균은 실적 3분기 이동평균임

II. 수출기업의 수출업황 체감도 분석

1. '12년 3/4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3분기 기업의 수출업황 평가 전기대비 악화

- 3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09년 1분기(73) 이후 최저치인 89 기록(전기대비 10포인트 하락),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전기(103)대비 11포인트 하락한 92 기록
 - 수출물량 악화는 유로존 위기해결 지연,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에 따른 소비둔화 및 중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92로 전기(99)대비 7포인트 하락
 - 유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며 제품원가 상승압력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수요둔화에 따른 경쟁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반도체 등) 및 원화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기준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됨
 - ※ 원/달러환율 : 1,145('11.4/4) → 1,131('12.1/4) → 1,152(2/4) → 1,134(3/4)
 - ※ D램가격 : 0.88('11.12월) → 1.02('12.3월) → 1.17(6월) → 0.92(9월)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3/4	4/4	1/4	2/4	3/4	4/4	1/4	2/4	3/4
수출업황 평가지수	109	102	98	102	97	92	95	99	89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103	94	89	97	89	94	91	99	92
수출단가 평가지수	103	100	109	104	97	99	100	102	94
생산원가 평가지수	115	116	134	123	119	111	117	111	107
수출물량 평가지수	112	104	104	110	101	95	99	103	92
수출계약 평가지수	112	105	103	110	102	94	99	102	92
자금사정 평가지수	106	102	96	99	94	94	94	97	92

- 산업별로는 조선업의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금속 산업의 업황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됨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산업	조선	자동차	기계류	석유화학	전기·전자	플랜트	금속	섬유류
2분기	77	96	100	91	100	100	100	107
3분기	75	82	90	87	90	94	83	94

2. '12년 4/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4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96로 전기(99)보다 하락

- 수출기업은 유로존 위기 지속, 미국 및 중국의 경기둔화 양상 등으로 4분기 수출업황이 전기대비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95로 3분기(99)보다 하락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기업들은 최근의 원화 평가절상이 당분간 지속되며,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00로 전기(102)보다 소폭 하락하여, 기업들은 최근 수출물량의 위축이 지속되나 감소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99를 기록 전기(100)보다 하락, 자금사정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1				2012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수출업황 전망지수	117	113	106	116	108	102	99	112	99	96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111	106	101	107	105	100	101	106	99	95	
	수출단가 전망지수	105	102	102	109	102	99	99	102	100	98
	생산원가 전망지수	110	109	112	125	111	108	110	112	104	104
수출물량 전망지수	121	114	110	124	116	107	101	118	102	100	
수출계약 전망지수	121	113	109	123	116	106	102	118	101	100	
자금사정 전망지수	110	106	101	106	106	100	98	102	100	99	

3.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 : 2012년 9월 10일 ~ 9월 20일
- 설문회수 기업수
 - 총 454개 기업(대기업 135개, 중소기업 319개)